

옷 벗기는 예술

- 휘발유의 내연생활 -



노 중 석

〈LG-Caltex 정유 기술개발기획팀장·이사〉

칭 춘, 킬리만자로의 눈, 밤, 특별상여금... 평소 누구에게나 이름답다고 느껴지는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답다고 하는 것중엔 여인에 관한 것이 유난히 많다. 모리자의 미소, 젓을 먹이는 어머니의 눈길 등 여자라는 존재는 조물주가 워낙 좋은 재료를 슬쩍 해서 빛은 때문인지 이름다움이 본질인 것 같다. 불행한 것은 이브 이래 오늘날까지의 모든 여자는 아직 예술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조물주의 남성에 대한 배려라는 창작활동의 美的 결과에 대해 어느 누구도 보장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원유를 들여와서 그 켜켜한 옷을 벗기고, 美油를 찾아내는 것을 정유

예술이라 했다. 그러나 정유는 예술을 넘어 기술의 경지에 들어선지 오래다. 예술이라는 것은 도둑맞은 아름다움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다. 기술이라는 것은 예술이라는 우연성으로부터 어떤 규칙성을 찾아내는 것이며, 이것을 문서의 기록으로써 세상을 밝히는 것을 문명이라고 한다. 문명의 이정표를 세우는 천재가 하는 일은 예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성을 발견해 내고 재현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술이라는 것은 예술적 감각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美油 만들기는 미색을 밝히는 문명의 기술이 있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원유가 고갈되면 정유장자들은 원유대신 석탄을 삶아서라도

(Coal Liquefaction), 제주도의 유채꽃을 볶아서라도(Biofuel), 눈물을 받아 분해해서라도(Hydrogen Fuel) 美油의 추구는 지속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문명생활과 밀애를 나누고 있는 것이 정유기술이고, 그중 극치를 이루는 것이 휘발유이다. 휘발유는 원유에서 5% 정도 만들어지는데 휘발유가 귀티나는 존재로 부각된 것은, 오늘날 문명생활의 총아인 승용차가 「기분」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승용차라는 것은 단순한 동력차의 의미를 넘어선다. 강력한 힘, 차에 몸매, 색깔, Brand Name... 이 모두가 매력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차를 고를 때 진정한 매력의 포인트로 주시하여야 할 점은 실제 운전을 해보아

성능을 테스트 해야 할 뿐 아니라, 차와 휘발유가 「한몸」이 되는 내연관계를 잘 음미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의 엔진을 현학적으로는 「內燃」기관이라 한다. 안에서 불 붙는다는 뜻이다.)

휘발유가 하는 역할이란 자동차속의 연화장(카브레이터)에 가서 파트너(공기)를 만나, 무도회장(엔진 내부)에 들어가 악단(전기 점화장치)에 맞추어 신나게 불꽃의 춤을 추는 일(폭발 이완, 긴장, 스티의 반복)이다. 그러면 차가 기분이 좋아져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휘발유의 향연을 운전감각으로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차이이며, 좋은 휘발유가 된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차가 있더라도 그에 걸맞지 않은 휘발유와 짝을 맞추면 감미로운 로망을 꿈꾸는 도중에 차체로부터 심한 소음을 느끼며 어쩔줄 모르게 된다. 내연기관의 감흥이 외부의 운전자에게까지 축적되어진다면 탈이 생긴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美油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휘발유의 매력이 어떻게 등급지어지느냐 하는 옥탄가의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가 휘발유에게 바라는 것은, 엔진 속에서 불꽃춤의 향연을 감미롭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단의 지휘에 정확하게 리듬을 맞추고 우아하게 발을 놀릴 줄 알아야 한다. 때때로 몸을 돌리기도 하고 치마를 살짝 펼

려져릴 줄도 알아야 제격이다.

옥탄가라는 것은, 휘발유의 박자관념을 점수로 환산한 것이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지휘봉이 내려가기도 전에 먼저 아차하는 연주자는 말하자면 옥탄가가 낮은 양반들이다. 옥탄가가 낮을수록 춤곡이 박자(엔진점화)에 어긋나게 미리 펼쳐대는데(이것을 自然發化라고 하며) 무도회장의 흥을 깨게 된다. 자동차에서 까랑까랑한 금속성 소음이 그 불협화음의 소산이다. 이것을 녹킹 현상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엔진의 피스톤이 기분 좋게 절정에 올라오는 것을 「카랑카랑」 두들겨 때리며(Knocking) 놀라게 하는 소행 때문이다.

금세기 경제학의 대가인 케인즈가 당시 오염하기로 소문난 발레리나 Lopokova와 결혼하여 만인들의 시기쉬인 구설수에 올랐었는데, 그가 신혼여행때 사용한 휘발유 옥탄값은 80이 못 되었다. 그 이후 케인즈는 미국으로 건너가 본의 아니게 옥탄값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 옥탄값의 인플레이션은 경제력 향상의 필연적 산물이고, 금세기 미국 경제력의 발흥은 케인즈 경제이론의 사생아에 해당된다면 케인즈는 옥탄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케인즈의 경제이론은 「인플레이」를 해결하는 대책은 되지 못했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옥탄값의 수준은 96이상이면 고급, 96이하이면 보통으로 규격화 되어 있다. 그만큼 휘발유의 박자관념이 높아졌다는 뜻이

고, 차의 승차감이 향상된 것을 의미한다.

휘발유가 점화시기 이전에 자연 발화하는 早燃증세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식이 있다. 한가지는 녹용 등의 보약성 약제를 달여 먹는 약제 처방과 흡사한 것으로서 예전에는 알킬납이라고 하는 옥탄가 향상제가 애용되었었다. 이 알킬납은 휘발유로 하여금 엔진의 피스톤이 최고점에 이를 때 비로소 폭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연효과를 낸다. 납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有鉛휘발유라고 분류되는데, 납성분은 대기 중에 방출되어 인체에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국제적으로 납용이 제한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아예 자취를 감춘지 오래이다.

유럽지역에 가면 아직도 유연(Leaded) 휘발유가 종종 눈에 띄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소비문화에서는 선진국이 되어 있는 셈이다. 알킬납 대신에 납성분이 없는 MTBE 등의 알콜류로 처방전을 바꾸게 되면 無鉛휘발유에 속하게 된다. (「유연」이나 「무연」은 옥탄값의 높낮이와는 무관하며, 단지 납성분이 有無에 따라 구분된다.)

옥탄값을 올리는 또 한가지의 방법은, 흑염소를 달여 먹는 대신에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체력증강을 꾀하는 일이다. 즉, 早期發化 증세가 심한 휘발유 성분을 백금등의 귀금속으로 장식된 밀실(축매개질장치)에서 「개질」을 시도하는 것이다. 휘발유분중

에 다이아몬드성분(탄소)이 5뿡에서 13뿡 정도(지난호 내용 참조) 직선으로 뺏뺏하게 나열돼 있고, 게다가 저마다 태양성분(수소)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파라핀(Paraffin)계열이라 하며, 불꽃점화연회의 리듬을 못 맞추는 못난이들이다.

이와는 달리, 다이아몬드성분이 모여 원형의 모습을 이루고, 태양(수소)과의 데이트도 환상적(環狀的)으로 하되 여유를 갖는 멋쟁이 신사가 있다. 芳香族系(Aromatics)이니 나프텐系(Naphthene)가 여기 해당하며, 승용차 엔진과는 찰떡궁합을 이룬다. 귀금속의 도움으로 못난이(파라핀계)에서 멋쟁이(나프텐, 방향족)로 수직신분 상승한 것을 「改質油」(Reformate)라 부르며, 프로수준(93 이상)의 음악성(옥탄값)을 갖는다.

好男이 선호하는 휘발유는 이렇게 시련과 수련의 과정을 거쳐 성숙된 改質油를 美油의 원천으로 한다. 납성분이 없으므로 자연 「무연」휘발류에 속한다. 국내시장에서의 무연 美油가 국제적으로도 앞서 있는 점은 MTBE 등의 정력 증강제를 달여 먹일 뿐만 아니라, 못난이의 체질 자체를 정력적으로 「改質」하여 멋쟁이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금은 잊혀진 얘기지만 美油의 파트너가 되는 자동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유연휘발유용 자동차와 무연휘발유와의 관계를 잠깐 언급하고 가자면, 유연휘발유용 자

<미유선발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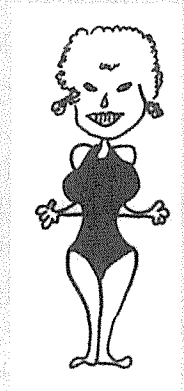


옥탄가 100이상(고급휘발유)

- 부르스춤 스타일
- 군소리가 없다
- 힘이 강력
- 옥체피에 얼굴도 미인
- 시중의 일반 자동차와는 궁합이 제대로 안맞음

옥탄가 96(보통휘발유)

- 디스크춤 스타일
- 잔소리가 있는 편
- 힘은 보통
- 군살은 없지만 이쁜 맛도 별로...
- 자동차의 조강지처



옥탄가 96(신세대 청정휘발유)

- 월츠 스타일
- 투정이 있으나 귀엽다
- 설겅이 · 청소를 잘 해낸다
- 안방 · 화장실이 깔끔함
- 자동차의 내연의 사랑

야채와 과일로 건강을 지키는 민간요법

위 염

늘어가는 스트레스로 인해 위염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는 마늘, 무, 굴, 참깨, 꿀, 부추, 생강, 밀 등이 좋다.

곡물을 소화시켜 위장을 조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무는 즙을 내어 먹는 것이 좋고 마늘은 소량을 섭취하면 장의 운동이 촉진되므로 마늘 1통을 잘 구워 꿀과 함께 섞어 천천히 먹는다. 특히, 마늘은 구토가 있을 경우 잘 듣는다. 굴은 껍질을 잘 건조시킨 후 볶아 가루로 만들어 소량의 꿀과 함께 먹으면 좋다. 또, 몸을 덥히는 기능을 하는 부추는 즙을 내어 10~20m씩 복용하면 위의 만성 통증을 해소한다. 당근은 오장을 따뜻하게 하고 보습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볶아서 매일 적당량을 먹으면 소화불량에 좋다. 참깨는 신체가 허약하며, 마르고 쉽게 피곤해지는 것을 다스리는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흰 참깨를 노랗게 볶아 식초 1컵을 넣고 끓여 마시면 위통에 좋다.

피로, 권태감

피로는 근육 등 몸을 너무 사용하면 누구나라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피로가 쌓이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여러가지 병을 유발하게 된다. 피로를 푸는 데는 참깨, 마늘, 생강, 현미, 찹쌀, 두부, 완두콩, 알로에 등이 좋다.

참깨를 가리켜 중국에서는 「신체가 약하여 피로할 때 보충한다」고 말하고 있다. 흑임자를 볶은 다음 호두를 넣고 분말을 만든 다음 꿀을 잘 섞어 한번에 두스푼씩 하루 두번 먹는다. 마늘은 전신을 자극하여 활기를 주므로 3개월 정도 계속 복용하면 말초혈관까지 작용하여 전신에 활력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마늘과 생강을 같은 것에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면 된다. 또 현미는 소모성 질환이나 날마다 기력이 없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혈액이 나쁜 사람의 체질개선에 적합한 것으로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에게도 좋다.

동차는 이미 알킬납과 살림을 차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연으로의 변심은 곧 인격(아니 車格)을 의심 받을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조강지처의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무연 3~4번에 한번 정도는 유연휘발유를 찾아 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유연차의 모랄이다.

그런데, 무연이와 살림하던 무연차가 유연이에게 한 눈 팔아서 안 된다. 값비싼 세간살이(엔진구조, 촉매전환장치)가 망가지게 된다. 원래 무연이 유연보다 값이 비싸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무연차가 값싼 유연휘발유를 사용하여 무연차의 모랄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무연과 유연의 값을 똑같이 유지하도록 명하고 있었다. 그 만큼 무연소비자가 「pong」로 재미를 보았던 셈이다.

최근에는, 휘발유에 있어서 옥탄값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깔끔한 맛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무도회의 뒤안길에는 어지럽혀진 흔적이 남게 된다. 누군가는 청소를 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휘발유가 엔진속에서 한마당 춤판을 벌이고 나면 후미진 곳에는 껌이 뱉어져 있곤 한다. 이 껌(Gum)물질 또는 찌꺼기류(Sludge)를 씻어내기 위해 청정제를 휘발유에 섞게 된다. 好男의 취향은 최고급 청정제를 선택하고 있다. 여기사서 짙고 넘어갈 점은 아무리 좋은 청정제라 해도 껌을 누가 씹었던 것

이나에 따라 효능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최근에 생산되는 승용차는 무연이를 위한 것 뿐이며, 무도회장도 전자식으로 개조하여(전자식 연료분사장치), 청정제의 사용은 필수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휘발유 옥탄값의 향상이 개질을 통한 체력증가, 흑염소(알콜류의 옥탄가향상제)만을 달여 먹은 경우, 흑시 춤추는 일(연소효과)은 좋아해도 쓸고 닦는 일(청정효과)은 잘 못할 가능성이 있다.

好男은, 얼굴은 예술이고 벗기면 철학인 美油를 원치 않는다. 好男은 옥탄값을 올리기 위해 휘발유에 美服을 섞어 보기 보다는, 옷을 벗겨도 裸身の 모습 자체가 음악적이고 보다 環狀의인 개질유에게 깔끔하고 새콤한 휘발유의 유희를 하게 된다. 얼굴도 예술, 벗겨도 예술임을 지조로 삼는 것이 好男휘발유와 차와의 內燃 생활이다.

근래들어 LG정유의 Techron을 시발로 하여 각 정유사마다 *Enclean, Super Clean, E-max* 등등의 휘발유 청정경쟁이 불 붙은 사연도 알고 보면, 휘발유의 내연생활에도 정력을 상징하는 옥탄값을 높여 주는 구실만으로는 권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권태를 깨는 방법은 신세대 취향대로 새롭게 변하는 길밖에 없다는 천고의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된다. ☺